

“인간이 지닌 잔인함은 어디까지인가?”

위안부 삶 그린 은미희 장편 ‘나비, 날다’ 펴내 허구 배제 사실 기록...영문판 먼저 출간 화제 “죽음 목전에 둔 전장서도 인간에는 피어나죠”



“많이 아팠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구나.. 인간이 지닌 그 잔인함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쓰는 동안 진저리를 치며 올라오는 육지기를 참아야 했어요.” 은미희 작가가 최근 위안부의 삶을 그린 장편 ‘나비, 날다’ (집사재)를 펴냈다. 열대여섯 살 조선 소녀들이 겪었던 아픔을 담은 작품은 일본군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모든 에피소드가 사실”이라는 점이 눈길을 잡아끈다.

본디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다. 가상의 인물과 상상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소설의 형식과 구성을 빌려 엮어냈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에서 이번 작품은 ‘사실의 기록’이자 ‘또 다른 증언’으로 다가온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2년 전까지 동신대에서 강의를 했다. 강의가 있을 때는 1주일에 두 차례 광주에 왔다가, 강의를 끝나는 대로 바로 상경을 하곤 했다. 목포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성장했던 터라 광주는 작가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문학행사장 등에서 작가를 줄곧 보았지만 정작 창작이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다. 묵묵히 창작의 세계를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뿐이었다. 어쩌면 전업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에게 작품을 비롯한 밥벌이를 묻는

것은 실례일 터였다. 그러나 이번 장편 발간 소식을 듣고는 모처럼 전화로 작품 이야기와 창작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겪어버린 인생과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잔혹함은 어디까지인가라는... 한편으로 죽음의 목전에 와 있는 전장에서도 인간에는 피어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구요. 그것이 인간이며 그 인간애가 있어 우리는 얼마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작가는 당초 이 소설을 지난 2013년에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전격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다. 당시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차단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은 작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가적 의무로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그대로 쓰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이자 진실



을 알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철저히 주관적인 사고와 판단을 배제하려 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번 장편은 먼저 영어로 출판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공무원인 이상원 박사의 도움으로 영어판으로 나올 수 있었다. 출판 당시 많은 협박과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상원 박사 또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누구보다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설은 조선의 처녀들이 일본 군인의 포임과 강제에 의해 버마(지금의 미얀마)의 위안소에까지 끌려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소녀

들은 일본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강간당하고 성병에 걸린다. 어떤 소녀는 임신도 하기도 한다. 위안부들은 일본 제국의 군인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성노예 신세나 다름없었다.

당초 책은 2권으로 쓸 계획이었다. 1권은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가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2권은 위안소를 나온 이후의 신산한 삶을 추적하려 했다. 그러나 작가는 “1권을 쓰는 동안 건강을 잃어버려 2권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거대 폭력 앞에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고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민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 지는지 생각해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쓰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참혹한 것을 후회했으니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할 일이라는, ‘사관의 자세’로 기록을 남기자는 마음으로 매달렸죠.”

작가는 몸은 서울에 있지만 항상 광주를 떠올릴 때면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고인다고 말한다. 이런저런 일로 다른 도시에 갈 기회가 많지만 광주가 갖는 분위기는 특별하다는 것이다. “느림과 빠른, 전통과 첨단, 예술과 과학이 공존하는 특이한 곳”이 바로 광주다. 그는 “언젠가는 광주로 돌아갈 거라며,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작가는 중앙일간지 신춘문에 당선과 삼성문학상 수상 등 계기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이브들의 아픈 수다’, ‘교황 바오로 2세’ 등 다수의 작품을 펴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작가는 “‘나비, 날다’ 2부를 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의 병폐인 편가르기 같은 부분들에 대한 소설화 등도 차근차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복합문화공간 ‘김넷과’ 이색 아트콘서트 열린다

30일 대구 피아니스트 최원겸 공연



광주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문화공원 ‘김넷과’에서 이색적인 아트콘서트가 열린다.

30일 오후 7시 열리는 공연에서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원겸(시진씨)의 연주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현재 김넷과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작가(강민정·곽석현) 2인 초대전’(30일까지)을 축하하기 위해 피아니스트 최씨가 기획한 공연이다. 특히 강 작가는 지난해 광주 전시를 기획했다. 암 선고를 받고 취소했지만 투병 생활과 함께 작업활동을 이어가 이번 전시를 열고 있어 암도 완치단계다. 최 씨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대구 시민들과 함께 예술여행팀을 꾸려 연주회를 열고 전시회를 감상할 예정이다.

계명대 예술대학원,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각종 국제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최씨는 이번 무대에서 바흐의 ‘프렌치 슈트 5번’과 쇼팽의 ‘환상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음악회를 찾는 이들이라면 지하와 1·2층에서 열리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전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강 작가는 지면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담아낸 신작 30여점을 선보인다. 곽 작가는 화면 위 집요하게 쌓아올린 점을 통해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는 유화작 20여점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두 작가는 지난 2019년 대구 영무 예다을 견본주택 아트페어에 참여한 것이 인연이 돼 이번 광주 전시를 열게됐고, 김넷과는 전시 공간과 함께 창작 지원금도 지원했다.

한편 이번달 아트콘서트와 함께 열리는 ‘작가스토리’에서는 10월 김넷과 전시를 앞두고 있는 조각가 박형오 작가의 작품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김넷과 후원회장인 영무토건 박헌택 대표의 메세나 활동으로 ‘김넷과’는 영호남을 잇는 민간 예술교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구작가 초청전과 함께 대구지역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아트페어를 개최, 양 지역 작가를 소개했으며 아트호텔인 부산 해운대영무파라드 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대구와 광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들에 바다의 소중함 연극으로 알리다

토박이 ‘고래장군과 용궁...’ 10월 7일까지 광주 5개 초교서



극단 토박이는 오는 10월 7일까지 광주 초등학교에서 환경극 ‘고래장군과 용궁이야기’를 공연한다.

‘금희의 오월’, ‘정실홍실’ 등 오월극을 비롯해 ‘가물지 왕자’, ‘날아라 나비야!’ 등 환경극, 어린이극을 선보여온 오월극단 토박이가 ‘환경교육프로젝트 찾아가는 환경극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교육프로젝트 찾아가는 환경극축제’는 환경경부, 광주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토박이는 오는 10월 7일까지 광주 지역 초등학교 5곳에서 환경극 ‘고래장군과 용궁 이야기’를 공연한다.

지난 24일 시작해 총 10회 선보이는 ‘고래장군과 용궁이야기’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염물로 훼손되고 있는 바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작품은 깊은 바닷속 용궁을 배경으로 바다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 여의주’를 지키기 위한 용

궁나라 물고기들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염물로 생명 여의주가 점점 힘을 잃어간던 어느날 후크 선장이 만든 괴물 로봇 물고기가 나타나 생명 여의주를 훔쳐 달아난다. 용왕님과 용궁 대신들은 생명 여의주를 지킬 수 있

을까? ‘고래장군과 용궁이야기’는 박정운의 작품으로 공연은 나장진·유인혜·송희용이 진행하며 임해정·강중원·고영욱·윤재원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22-628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민속놀이 추억 사진에 담아요 ‘전통문화관 가족나들이’ 진행

코로나 장기화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명 ‘전통문화관 가족나들이’. 전통문화관에서 가족들과 한복을 입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대상자는 총28팀 가족을 선정할 계획이며, 부모와 자녀 등 4인 이하 가족이면 된다. 가족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이대(二代) 이상 4인 이하로 신청자와 사진 수령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으로 한정한다. 사진 수령자는 조부모 등 어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족을 우선해 선정한다.

10월 한달 간 총 28회 진행(3일, 4일, 9일, 10일, 11일, 17일, 31일)되며, 일차별 신청 가능시간은 모두 네 차례(오전 9시-11시, 11시-오후 1시, 2시-4시, 4시-6시)다.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링크된 네이버폼을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850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